

전일동향

전일대비 7.30원 하락한 1,454.50원에 마감

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7.30원 하락한 1,454.5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.80원 하락한 1,454.00원에 개장했다. 1,450원대 초반을 횡보하던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1,460.50원까지 레벨을 높였다. 그러나 새로운 내용 부재에 환율은 하락 폭을 회복하며, 1,454.5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7.5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72.31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54.00	1460.50	1443.00	1454.50	1456.00
	엔화	980.42	980.76	965.61	976.93	-
	유로화	1550.78	1570.42	1542.65	1569.69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97	-6.75	-14.13	-27.96
	결제환율(수입)	-1.64	-5.81	-12.32	-24.57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관세 전쟁 우려 완화에...1,44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3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54.50) 대비 10.15원 하락한 1,442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국 관세정책 유예 등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부분적 관세 유예 및 에너지 관세 철폐 가능성을 발표했다. 이에 관세 전쟁 우려는 일부 완화되며 위험회피심리가 축소됐다. 관세정책 유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축소 등에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+1.14%, S&P +1.12%, 나스닥 +1.46% 마감했다. 한편 유로화는 EU와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. 달러화는 미국 관세 전쟁 우려 완화 및 유로화 강세에 약세 흐름을 보이며 1.36 하락한 104.30을 기록했다.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입 결제 및 해외주식투자 등 달러 실수요 저가매수에 환율의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37.80 ~ 1446.6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233.48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.1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3006.59, +485.6p(+1.1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2.82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0362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